

광주·전남 핵심 법안 국회 통과...이젠 여순사건만 남았다

송갑석 “8명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 만들기 최선 결과” “여순사건특별법 처리 전남 국회의원과 힘 모으겠다”

3월 임시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관련 주요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이제는 여순사건(여수·순천사건)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법 처리만 남겨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월 임시국회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남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5일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

해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광주지역 핵심현안 법안

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5·18 3법의 통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을 막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나아가 5·18 단체가 공법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통

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통과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 및 교육과정이 진행될 세계적인 대학이 될것이다. 그는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을 모아 빛을 발하는 광주공동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반드시 제정돼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남 국회의원들과 한 목소리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뉴스

정의용 “北,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 깊은 우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 후 결과 발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여러 노력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연방 외교장관과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2018년 9월 남

북 정상 간에 합의한대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오늘 회담을 통해 두 장관은 한-러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여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신북방 정책을 통한 러시아와 협력이 유라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논의에 역점을 뒀다”며 “러시아와 한국은 역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의 협상 프로그램 가능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며 “모든 관련국이 모든 종류의 군비 경쟁과 군사활동 활성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김종인·유승민·나경원·금태섭 한자리에... “오세훈 도와 승리”

김 “단일화로 당 결속력 강화” 나 “임종석, 범피 정당화 우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필두로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민·나경원·오신환 전 의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이 25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뭉쳤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는 서로 경쟁관계였거나 신경전을 벌였던 이들이 모여 오 후보를 도와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종인 위원장도 밝은 표정으로 이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당의 결속력 강화와 대선 승리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용단을 내려 단일화를 성사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함으로써 당의 결속을 다시 다질 수 있었고 승리하면 당의 결속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같은 오 후보의 지지율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며 “절대 자만해선 안 된다. 언어 사용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 한마디 잘못에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할 수 있는가를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 유승민, 나경원, 금태섭, 심재철, 김성태 전 의원 모두 감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다”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유승민, 나경원, 금태섭 전 의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과 부산 우리 후보가 크게 앞서는 부분에 대해 절대 자만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의 향기, 박원순이 가장 정렬한 공직자라는 말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라는 사람이 했다”며 “사건의 피해자가 이 말을 들으면 그 피해자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이 아직도 박원순 전 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발언하는 민주당을 정말 확실하게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금태섭 후보가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빨간 점퍼가 잘 어울린다”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황당한 말을 계속한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집단의 후보가 당선되면 범위를 심판하기는 커녕 범위를 정당화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호 2번이 적힌 빨간 국민의힘 점퍼 차림으로 자리한 금태섭 전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폭주를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만, 무책임을 심판해야 한다”며 “전임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도 서울에서는 전임시장에 대한 침묵 릴레이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합리적 분들이 모여서 반드시 제동을 걸고 회초리를 때려야 한다”며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선거 승리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vs 이재명 지지자 싸움터 與 게시판, ‘1일 1글’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권리당원 및 정책제안 게시판 글쓰기를 1일 1개로 제한하자 당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6시께 권리당원 게시판에 공지문을 올려 “최근 권리당원 게시판을 통해 상호간의 비

방·명예훼손 등으로 당원 여러분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게시판에 하루에 게시글 1개, 10분에 댓글 1개를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했다. 기존에는 10분마다 게시글을, 1분마다 댓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당내 대선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당원들 간 비방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지층 내부 분열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뉴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